

2. 낮은 실업률과 기업의 노동 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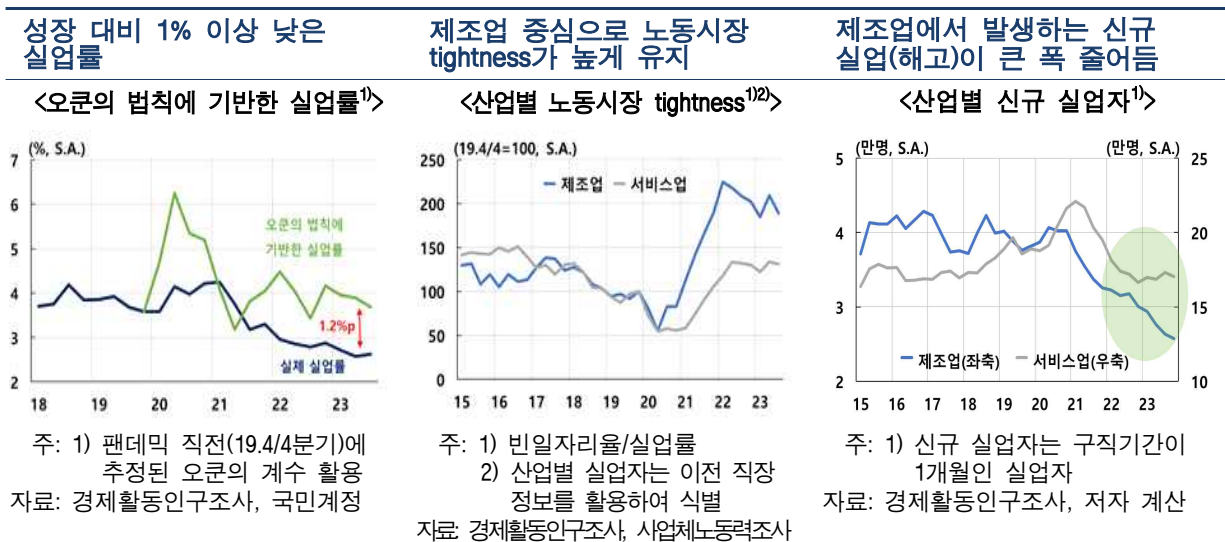
(조사국 고용분석팀)

1. 2022년 이후 3%를 밑도는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와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23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2.7%)을 기록하였다. 2023.1/4~3/4분기 중 실업률은 오쿤의 법칙(성장과 실업률 간 역의 관계)이 제시하는 수준보다 1.2%p 낮았는데, 이는 기업들이 생산량 대비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러한 현상에는 신규채용의 어려움으로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이 해고(layoff) 대신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면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있는 점이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신규 실업(해고)이 크게 줄어든 반면, 초과 근로시간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 이는 기업의 노동 비축이 최근 낮은 실업률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실업률 감소를 실업으로의 유입(inflow, 취업→실업) 감소와 실업에서의 유출(outflow, 실업→취업) 증가로 나누어 분해해 보아도, 실업으로의 유입 감소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¹⁾.

4.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실업률이 큰 폭 하락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하나, 인력난을 우려한 기업의 노동 비축 행태도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 실업률 변동 요인분해(Shimer decomposition) 결과,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는 동안(22.2/4~23.4/4분기) 실업으로의 유입 감소의 기여도(92%)가 과거 평균 수준(71%)에 비해 높았다.